

“광주지역 공무원 4~5명, 산정지구 토지거래 의혹”



정부의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전경. 광주시가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광산구,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듯
거래자 명단과 실명 대조해 다음주 중 1차 조사 결과 발표
사전 정보 취득 투기 의혹 ... “친인척·지인 활용 차명도 조사해야”

광주시와 광산구가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광산구에서 넘겨 받은 산정지구 토지 거래자 명단과 광주시 공무원 등의 명단을 실명 대조하고 있으며, 내주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자 땅 투기비리 사전 학습’ 등을 통해 개인 명의로는 거래를 꺼리는데다, 투기성 거래의 경우 친인척 등 가족을 넘어 지인을 활용한 이른바 ‘차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작 몸통은 잡

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시청 내 관련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광산구로부터 최근 5년간 산정지구 내 토지 거래자 명단을 넘겨 받아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다. 시는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공주택 지구 발표 1~2주 전에 산정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 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이들과 이들 친인척의 토지거래 여부까지도 집중적으로 들

여다보고 있다.

시는 내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미 시청과 광산구청 안팎에선 광산구 공직자 4~5명이 직·간접적으로 산정지구 토지 거래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발표한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다수의 매매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광주일보 2021년 3월 9일자 6면〉 신규 택지 조성지구로 발표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거나 ‘맹지’(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토지)인 곳을 대상으로 수십여 건의 토지 매매와 ‘지분 쪼개기’까지 이뤄졌다. 정부 택지 조성 예정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매매도 10건에 이른다.

산정동에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모두 152건의 토지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 취득에 따른 땅 투기 의혹’

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갑자기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매매가 7건이 잇따라 체결되고, 하루에만 6건의 매매가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됐다.

산정지구 주민들 사이에선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마을 휴경지 등에 눈을 발로 매워 묘목을 심은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개발 대상 농경지를 사들여 묘목을 심는 것은 유리한 보상을 받기 위한 대표적 투기수법이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수년간 매매도 되지 않고 활용방안도 없는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일정 시점에 갑자기 여러 건 이뤄진 것은 상식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확실한 개발 정보가 없다면 절대 매입을 하지 않을 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정지구 일대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투기 정황 등이 포착된 사례에 대해선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음주 중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올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활용한 땅 투기 거래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을 확대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일단 공직자를 대상으로만 조사 중”이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이날 광명·시흥에서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 산정지구 등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해 24일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됐다.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의 아파트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최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정치권 “UN, 미얀마 사태 해결 나서라”

적극 개입해 민주주의 수호 촉구
광주 시민단체들 연대 방안 논의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10일 “UN은 미얀마 사태에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의 군경 진압이 점점 잔혹해지고,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은 이어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별도로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 만행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유혈진압에 150만 광주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죽음을 불사하고 민주주의 전선에 나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군부 독재의 종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열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은 미얀마 국민의 죽음을 무릅쓴 항쟁의 고통과 그 숭고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새 시대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항쟁에 엄숙한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11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광주 연대 구성을 위한 실무회’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의 미얀마 상황과 광주시민사회 대응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지를 위한 구체적 연대방안과 모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확산 지속...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

정부, 조정안 내일 발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진정되지 않고 있다. ‘3차 대유행’이 넉 달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 300~400명대까지 내려왔으나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보험사 콜센터발 연쇄 감염이 주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세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특성상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금보다 방역 수칙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준비중이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하면 내달 초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일 발표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0명이다. 직전일이었던 9일(446명)보다 24명 늘어나면서 이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0일(448명) 이후 이날까지 19일째 300~4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확진자 470명은 지난 2월 19일(561명) 이후 19일 만에 최다 수치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99.9명을 기록하며 400명에 달해 사실상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범위에 재진입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기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는 2168명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9일에도 보험사 콜센터 관련 1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데 그쳤다. 서구 상무지구에 자리한 보험사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 직원 87명, 가족 14명, 기타 11명 등 합산 112명이다. 전남에선 지난 9일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893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12일 오전 발표한다.

/연합뉴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목포

도보여행의 중심지, 낭만이 가득한 항구도시에서
즐기는 목포의 맛과 멋

특별한 시간, 목포시입니다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